

제 9차 UN 인권이사회 정기회기 참가 보고서

국제민주연대 나현필

1. 제9차 UN인권이사회 참가 과정

- UN 및 국제인권 담당 국내 NGO대응팀에서 제9차 UN인권이사회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광우병 대책위원회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과 국제민주연대 나현필, 국제민주연대 자원활동가인 문연진씨가 한국NGO대표단으로 참가하게 됨
- UN 인권이사회에서 구두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협의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와 민변이 사전에 발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, UN인권이사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 및 NGO들에게 한국상황을 알리고 UN인권고등판무관실을 접촉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자 관련 특별보고관의 한국초청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로 함
- 현지 활동 관련하여서는 포럼아시아 김기연 국장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

2. 현지 활동일정

- 9월 13일(토): 뮌헨을 거쳐 제네바 현지에 저녁 8시 도착
- 9월 14일(일): 오후 1시부터 포럼아시아 제네바 사무실에서 구두발언문 작성
- 9월 15일(월): UN본부에서 출입증 등록, 구두발언문 영역 검토 및 수정
- 9월 16일(화): UN 인권이사회 참가 및 구두발언문 최종 수정
- 9월 17일(수): 구두성명 발표, 제네바 한국 대표부 면담,

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회견 자료 준비

- 9월 18일(목): 보도자료 발표, Human Rights Watch 면담, 인권고등판무관실 동아시아

아 담당 테오, 표현의 자유 UN특별보고관 올라씨 면담, 한국 인권상황 관련 기자회견 진행, 인권고등판무관실 우종길씨 면담

■ 9월 19일(금): 인권고등판무관실 안윤교씨 및 인권옹호자 담당 오솔라씨 면담, 귀국

3. 현지 활동보고

- 1)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가 인권옹호자관련하여 구두성명 발표하고 민변과 ALRC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집회 및 언론, 사상의 자유관련하여 구두성명 발표
- 2) ALRC가 지난 포럼아시아와의 공동 한국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29일 서면성명을 발표한데 이어, 9월 16일날 구두성명을 발표하고 Quaker단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하여 같은 날 발표.
- 3) 총 4차례에 걸쳐 NGO들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구두발언 및 서면 성명을 발표함.
- 4) 기자회견을 통해,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으나 촛불시위 당시의 경찰폭력을 알려냄
- 5) 한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, 광우병 대책회의와의 소통, 경찰장비사용규칙 및 형사소송법등 현존하는 법률 및 규칙 우선 준수,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백지화와 전의경제도 존속등, 후퇴하는 인권관련 한국정부 약속 이행 및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인권수준 준수등을 요구하고 한국대표부는 전문을 통해 이를 본국정부에 전달하기로 함.
- 6) 특별절차 관련하여 접촉한 결과, 표현의 자유 담당 특별보고관실은 지속적으로 관

심을 가지고 있으며 10월 경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. 인권옹호자관련 특별보고관은 올해는 방문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힘.

7) 안윤교씨를 포함하여 각 특별보고관실 담당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. 커뮤니케이션 관련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야 한국 방문을 포함한 UN인권관련 특별절차의 개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함

9)알제리와 캐나다 정부대표단에게 지난 UPR에서 한국의 집회 및 시위자유에 대해 발언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달함

4. 활동평가

-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를 했음에도 실제 제네바 현지에서 구두발언문 작성 및 여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
-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지 로비 활동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포럼아시아의 협력을 구하더라도, 한국 시민사회가 제네바에서 스스로 로비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
- UN인권이사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이 필요함
- 한국정부가 한국NGO의 참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확실함. 지속적으로 UN을 이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